불교 '마음치유산업' 독인가 약인가

우혜란 연구원, 교수불자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마음치유 산업으로 대중적 영향력은 확대되지만, 결속된 신도층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기모순'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혜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7월 4~6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2019 한국교수불자대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혜란 연구원은 '한국 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과 종교 영역의 재편성'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한국불교 마음산업의 현황과 영향에 대해 진단했다.

우혜란 연구원은 201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힐링문화를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불교는 마음치유를 위해 '마음챙김'과 같은 서구 불교 명상 기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전통적 불교명상법에 서구 심리치료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일선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가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혜민 스님이 설립한 마음치유학교 역시 광범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바탕에 둔다. 이는 "힐링 프로그램 쇼핑몰"이며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혜란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은 불교적 색채를 줄이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우혜란 연구원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한국사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들 프로그램은 불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당 부분은 불교적 색채를 거의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現 불교 마음산업 전반 분석

불교 색채 빼고 대중화 집중

영향 증가 · 조직 약화 '딜레마'

교불련, 4~6일 동화사서 대회

'4차산업과 불교' 논문도 다채

또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우혜란 연구원은 "명상 치유 프로그램이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이 체험상품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재 안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라며 "또한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에 지친 개인에게 위안을 주고 다시 신자유주의 체재가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 유연한 인간'으로 기능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사)한국불교수불자연합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계 마음치유 사업의 영향으로는 △새로운 지도자군의 등장 △불교적 정체성 약화와 신도 감소 △불교와 심리학의 경계 약화를 제시했다.

우혜란 연구원은 "불교는 대사회적 경계를 낮춤으로서 자신의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높이지만 같은 이유로 강하게 결속된 신도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템플스테이와 같이 일반 대중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한국불교가 빠르게 신도를 잃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불교계의 마음치유 사업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종교'의 독립적 영역을 주장하기가 점점 어렵게 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불교가 마음치유 사업으로 인해 조직에 헌신하는 신도를 잃는다면 조직 종교인 불교에 해당 사업의 추진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교수불자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을 비롯해 30여 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기조 강연으로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4차산업 문명에 대한 불교적 조명'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4일 지정예고…명칭 수정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칠장사 대웅전'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으로 명칭을 바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또한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 화령전 운한각 · 복도각 · 이안청(사적 제115호)'도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보물로 승격되는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 경기도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줘 역사 ·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했다. 대웅전은 공포의 구성과 더불어 덩굴무늬를 그린 초각(草刻), 내부의 가구(架構)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천장의 처리,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나무를 활용한 점,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화초 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이 일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사례가 적어 가치가 크다. 고분단청은 호분(胡粉, 흰색 안료의 일종) 등으로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여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보물로 승격 예고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 칠장사 대웅전의 공포와 현판.

문화재청은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고려 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대웅전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칠장사(문화재자료 제24호)는 1014년(고려 현종 5년) 혜소국사(慧炤國師)에 의해 중창(重創)했으며,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하지 않는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해진다.

칠장사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와 현판 등도 남아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안성 칠장사 대웅전'과 '수원 화령전 운한각 · 복도각 · 이안청'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7월 19일 탄허기념관서

재가불자 신행 지침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 지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오는 7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자곡동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하계 워크숍은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지난해 시간제한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재가불자 신행 지침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해인사 前 도서관장 원창 스님이 발제를 진행하며, 발제 이후 2시간 동안 모든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지난 2월 동국대에서 〈디그나가의 아포하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광 스님의 발제가 이어진다. (02)2263-1973 신성민 기자

최신 미술연구 성과 한자리에

국박 〈미술자료〉 95호… 송광사 오불도 재조명 등

최신 미술연구 성과를 만날 수 있는 정기 학술서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정기 학술지 〈미술자료〉 제95호를 발간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미술자료〉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 6편과 자료 3편을 수록됐다.

특히 불교미술 관련 연구들이 눈에 띈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1725년 의겸화파의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 논문은 주목할만 하다. 순천 송광사의 '오십삼불도'는 18세기 전반 조계산, 지리산 등 전라도 일대에서 활약한 불화승 계보 가운데 의겸화파에 의해 제작됐다. 이 논문에서는 2016년 미국에서 반환된 순천 송광사 오불도를 포함시키고,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신)이 1969년 실시한 송광사 조사 기록을 참고해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의 배치와 구성을 복원해 불교회화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또한 이승희의 '고려후기 관경16관변상도의 원류와 독자성', 심영신의 '인도의 신관과 불교 신장 이미지의 형상화', 배재호의 '현장의 귀국과 마하보리사 정각상- 서안 출토 선업니 불상을 중심으로', 고바야시 고지(小林公治)의 '동아시아 나전사의 관점에서 본 고려 나전의 성립' 등이 수록됐다.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신사행렬도의 고찰' 논문도 주목된다. 이 그림은 조선 화원이 그린 국내 유일의 작품으로 그림을 배관한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 등 6명의 발문과 그림의 주제와 양식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1636년작이라는 통설을 깨고, 1764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소개한 강경남 학예연구사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제탁잔 소개'와 이수경 학예연구관의 '근대 평양 출신 여성화가 함인숙의 유작- 최미리 기증 2건의 6폭병풍을 중심으로'가 있다.

〈미술자료〉의 모든 논문과 총 목차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 연구 지형 분석하다

동국대 세불연 · 지성사硏 발표회 개최

한국불교학 연구 지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와 한국지성사연구회는 7월 13일 오전 1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4차 월례발표회 겸 제15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 연구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신진 학자들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회의 주요 논문으로 △'천태교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송곤/불교방송)' △'보조 지눌이 이통현 화엄을 수용한 이유와 배경(한가람/동국대)' △'조선후기 정토 염불 수행체계 연구(서재택/동국대)' △'백암 성총의 〈사경지험기〉 연구(이서련/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등이다.

논평자로는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이복희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정희경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등이 참여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불교학 연구의 지평이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의 시선과 무대로 확대되는 현실에서 우리 학문의 후속세대가 연찬하는 열린 마당과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